



###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09:30  
2부 11:30

인도 : 1부 이종백 목사  
2부 배장열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57:9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3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22(시편 37편)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321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우영식 집사  
2부: 이종기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잠언10:19(구약p. 921) | 인도자
- 찬양 | 1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 플롯 중주  
2부: 주의 놀라운 은혜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굳이 말을 하려면...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 찬송 | 하나님의 음성을 | 다함께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 다음주 기도 : I 부 : 김현욱 집사 II 부 : 전석우 장로  
~~~~~



###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 (제3부 남선교회 헌신 예배)

15:00

인도 : 회장 김기욱 집사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부회장 우영식 집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13:1~5 | 총무 정재섭 집사
- 특송 | 제3부 남선교회원
- 설교 |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 배장열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배장열 목사

◎ 다음주 : 제7부 남선교회 헌신 예배

#### 수요기도회

19:30

인도 :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배난영 집사
- 찬양 | 제7여전도회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마가복음 15:26~32 | 인도자
- 설교 | 지나가는 자들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이정숙B 집사 찬양 : 제8여전도회

#### 가정예배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찬송 | 36장       | 331장    | 333장      | 343장      | 342장       | 586장      |
| 말씀 | 왕상8:54-66 | 왕상9:1-9 | 왕상9:10-28 | 왕상10:1-13 | 왕상10:14-29 | 왕상11:1-13 |



### 지난 주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 : 열왕기상 19:1~8  
제목 : 감정훈련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 신앙을 감정만으로 이해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감정의 절정을 신앙의 절정으로, 감정의 바닥을 신앙의 바닥으로 여기면, 오히려 영적 침체를 만납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나쁠 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죠. 기도할 생각을 안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죠. 삶이 심심하거나 지루할 때, 믿음도 신앙도 덩달아 따분해지고 늘어지죠. 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요. 감정에 지면 안 됩니다. 감정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감정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결투하죠.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이 생사를 건 결투에서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립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 이 소식을 아합 왕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신하가 엘리야를 향해,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만드시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하루 동안 도망을 쳤어요. 광야에 이릅니다. 로렘 나무 밑에 주저앉았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너를 버려주세요. 지금 내 생명을 가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젠 감정, 기분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감정입니다. 지금 로렘나무 아래서, 기진맥진해있는 엘리야의 모습, 탄식, 혹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가 꼬일 때,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탄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조금 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의 열정, 씩씩한 기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완전히 기가 죽고 풀이 죽어,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회의가 찾아와 엘리야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정말 선지자 노릇 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게 뭐니까? 죽고 싶다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집어치우고 싶다는 것과 실제로 집어치우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기쁘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늘을 나는 새가 날새에 구애받습니까? 기분에 따라 날고 안 날고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늘 나는 새는 흐린 날도 날고, 갠 날도 날고, 비가 오는 날도 날고, 안개 낀 날도 날아다닙니다. 들에 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나거나 펴집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 꽃이 피고 안 피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먹고 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사,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를 충분히 먹고 입히고 채우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내 감정이 파도친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오락가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느낌에 따라 내 기분,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기분을 따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광야에서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는 로렘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로렘나무 아래서 절망스럽게 탄식하는 엘리야가 되든지, 둘 가운데 하나가 돼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나 가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과 감정을 따라 욕구를 채우는 식으로 신앙 생활하게 돼요. 기분이 좋으면 복을 구하고, 기분이 나쁘면 생각하고 말로 저주를 불러오는 삶, 결국 평이 되고 말죠. 세월 허비하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신앙이 절정, 나쁘면 바닥,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거룩한 지성으로 감정과 기분을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 갈멜산 대적을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주관: 박무주 장로)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안 내, 봉 헌. Rows include 1부, 2부, 차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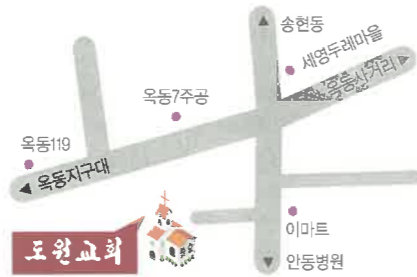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마애수양관 사타자교회 동가튼교회 등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운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남중국선교위원회 러시아카프카즈신학교 CTS 국제기아대책기구 경북새터민선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유동교회

예배모임 안내

Table with 4 columns: 예배모임, 시간, 요일, 장소. Rows include 주일낮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오시는 길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Table listing church staff: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원로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지휘, 오르간, 담임목사, 교육전도사, 피아노, 신디.

- 환영 \*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 오후 찬양예배 : 제3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 추석 가정예배 :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목요 경배와 찬양(이번 주 주제: 소문) :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 금요기도회 : 이번 주는 추석명절 관계로 쉽니다. 모임 \* 당회 : 오후 1시 30분, 당회실 \* 권사월례회 : 오후 1시 30분, 3층 다윗실 \* 순장 모임 : 수요기도회 후, 본당 알림 \* 오늘은 천원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당기념 교회건축을 위한 몽골 흙트 지역 탐방(사정용 정로, 정석진 정로) : 9.25(월)~30(토)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10월 중보기도 통신 : 내용에 따라 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식 : 10.29(주일) II부 예배 시, 입교·세례 신청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신입서리집사 후보자 : 썬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실). \* 수요기도회 특송 : 8여전도회 끝난 뒤부터는 썬별로 드립니다(1썬부터). \* 교회 청소 : 오늘은 9팀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화장실, 카페등). \* 성경통독(101) : 강양숙(4) 이기자(2) \* 재정부 광고 : 온라인 현금 시 '건축현금' 계좌와 '십일조, 감사 현금' 계좌를 잘 구분하여 송금해 주시고, 십일조 현금과 감사 현금은 이름과 내용 (형식 : 000십일조, 000감사)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리부 광고 : 각 실 사용 후 전기와 에어컨 잘 꺼주시고, 수돗물 사용 후 꼭 잠금주세요. \* 경안노회 원로회 가을 연수회 : 10.9(월)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사적지 및 세종시청 견학 당일 오전 8시 20분 안동동부교회 앞 출발, 신청-이영찬 장로(010-3631-1994) 교인동정 \* 별세 : 박영환 성도(9.16) - 권연행 집사 부군 ■ 건축현금 계좌 :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현금 계좌 :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 실 일 조 : 강숙일 강신원 권엘림 권영만 권오규 권준희 권택성 김강락 김덕영 김명선 김복학 김재영 김순남 강영남 강영환 김영희 김옥수 김태환 남화연 박순옥 배찬영 배슬기 석화란 신화자 오성열 오수민 윤숙희 윤진섭 이승현 이연이 이영진 이은희 이종택 장영숙 권태민 최현찬 최정자 홍순진 감 사 : 강도순 강순교 강양숙 공태용 권기환 권엘림 권연행 권영준 권혜숙 강경환 강영남 김용수 김용우 강학인 강영남 강진희 김현경 김호근 남화연 류명희 민기서 민요한 민창재 박유분 박지우 배성근 사종교 석화란 손소희 손원호 신원순 안상홍 양슬기 오수민 이광원 이종택 이현성 임수현 임창규 임하정 장은영 전은희 전혜민 정문호 정성진 정순열 조계영 조영애 조재순 천기환 최은영 홍순진 홍태순 아들립순혜사경 안동남성향장단 무명명 생일감사 : 우의현 최순남 주정봉헌 : 227명 선교봉헌 : 1,927과 건 축 : 강근숙 강도순 권 혁 권기환 권지인 권택성 김남진 김경아 김중성 류명희 박순옥 배유민 서종교 이종택 강오진 조재순 최재훈 홍순진 무명명



2023 표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